

제1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7학년도 1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7.02.21.(화) 15:00~22:00
		장소	K동 206호
안 건	1. 2017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안) 논의		
주요내용	<p>[개회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총 인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절차적 측면에서 예산안이 늦어 등심위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함. 		
	<p>[합의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예산안을 등록금환원을 140%달성을 위해 노력했고, 천만장학회 20억과 링크사업 관련 예산안 반영 등을 일시적으로 검토하였던 바와 같이 교육비환원을 140%달성을 약속한다고 함. 학교 본부에서도 학생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오늘 이사회가 열리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 질의함. 재무팀장도 알고 있었는데 알려주지 않았는지 불만을 표시함. - 재무팀장 : 어제 등심위에서 총학생회장이 이사회 일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기억나지만, 예산서에 집중하느라 이사회 일정 부분을 집중해서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유감을 표명함. 특례규칙에 의거해 본예산을 학기 개시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작년은 윤년이라 24일이 제출기한이었으나, 올해는 제출기한이 23일 까지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① 등심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함.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이사장님께 보고해야 한다고 함. ② 지금까지의 진행 결과만 바라본다면 등심위가 이렇게 진행되면 안된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실행이 되었다고 함. 등심위를 12차까지 진행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원장님을 신뢰하여야 하는지 불만을 표시함. ③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상황을 실수로 넘어가야 하는지 질의함. 등심위 합의문을 포함하여 회의록에 기재된 것들이 이행된다는 		

	<p>보장이 없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등록금환원을 140%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안을 검토했었다고 함. 다만, 예산원칙에 반하고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140%보다 작은 예산편성이 됐다고 함. 오늘 재무팀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었던 점을 설명하여 이해 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어제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질의 함. 등록금환원을 140% 달성과 교육환경 공간 개선 요청 등 합의안 문구가 수정됐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둘 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라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장 : 합의된 사항을 회의록처럼 길게 작성하지 말고 세세한 내용은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마지막 회의록에 합의문을 넣고, 이에 덧붙여 합의문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합의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의견은 합의문을 설명하는 마지막 회의록도 합의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고 질의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합의문 안건을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함. - 위원장 :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학생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기재했으면 한다고 함. 지난 시간 논의 되었던 대학원 부분이 그 예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대학원대표는 학생회가 아니라는 학교 측의 주장이 있으나, 최소한 대학원등록금을 논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학원생을 대표하여 학생이 들어간다는 의미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함. 어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위원장이 수정하여 오기로 했었다고 함. - 위원장 : 이 부분은 학생대표랑 함께 논의하여 수정하겠다고 얘기했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지난해 등록금환원율이 134%이기에, 등록금환원율은

140%달성을 위해 천만장학금, 링크사업 등 수입재원이 확보되면 140%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함. 합의문을 요약 하자고 요청을 받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의록을 첨부하는 것 이라고 함.

- **사무처장** :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합의문 회의록에 작성되어 있으면, 추 후에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① 여기서 모든 게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함.

② 천만장학금 20억을 교육비환원을 지표로 사용하도록 배정 요청하고 합 의문에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함. 또한, 적립금 인출 및 링크사업 선정 등 외부적인 요소가 추가되지 않으면 등록금환원을 140%달성이 어렵다는 것도 명시하자고 함.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 학교 가 노력한다는 문구도 명시하자고 함. R동 13~15층 및 A동 공간문제에 대 해 질의 함. 회의록에 배정이란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 함.

- **위원장** : 교사임용문제는 문제가 있고, 사범대학 전용강의실 문제는 사범 대학에서 검토한다고 함. A동 101호, 103호는 각 대학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문에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 추진을 해보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지난해 합의문 사항이 이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이유가 합당하면 학생들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함. 그렇기 때 문에 합의문에 기재를 하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 옳다고 함.

- **위원장** : 학생대표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구를 만들겠다고 함. 학생들의 요구에 만족할 만큼 노력을 하겠다고 함. 다만, 공간문제라는 것이 기획 처장 한사람 의견만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합의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 '검토' 등 의 표현을 제외해야 한다고 함.

- **위원장** : 지난해와 달리 실무 소위원회를 두 개 더 구성하였고, 소위원회 를 통해 일의 진행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함. 합의문 표현을 다듬어 보겠 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① 이사회 강행에 대한 현재 상황, 상황에 대한 배경 및 위원장님의 발언이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함.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다음에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함.

② 140%달성이 되지 않는 예산임을 감안, 교육비환원율 140%달성을 위해 천만장학금, 링크사업 등으로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기재되어야 함.

③ 공간문제는 '학생들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논의하여 확정적인 것을 기재해야 한다고 함.

④ 세종캠퍼스는 서울캠퍼스와 비교하여 교양학과 강의실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함. 강의실을 학교본부와 학생대표들 간에 논의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요청함. 세종캠퍼스 교육환경개선 집행을 각 단과대학에서 요청이 아닌, 본부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교학처장님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요청함.

⑤ 손혜원의원을 만나 홍익대의 문화적인 요소도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함. 2학기에 미술대학에서 진행하는 거리미술전과 같은 문화제 활성화 및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학생경비로 1억원 증액을 요청함.

⑥ 수영장 단축운영도 자료를 검토했을 때, 수익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단축운영시간도 원래대로 운영시간을 연장 요청 함.

- **위원장** : 등심위 의결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진행된 점에 대해 사과 함. 등록금환원율 140%달성은 재무팀장이 설명하고, 참고해서 회의록에 정리하겠다고 함.

- **재무팀장** : 현재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교육비 환원율이 134%이며, 교육비 환원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한다고 함.

① 국고지원금 : 100억

- 사회맞춤형 링크플러스 사업 : 산학협력단 40억, 교비 10억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 산학협력단 10억

- 세종캠퍼스 중소기업청, 연구재단 및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 재정지원사업 제한이 해제되어 목표수주액 90억으로 설정 (현재 예산에는 예산은 58억이 반영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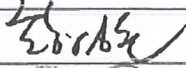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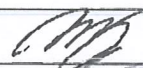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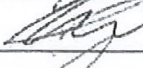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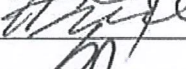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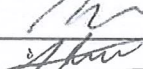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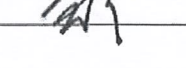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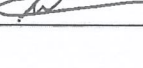
- 마포구청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 교비 8억 (학생경비 및 건축물관리비 진행 예정)

② 용도지정 기부금 : 20억

③ 산학일체교수 전임교원 5명 채용 함. 전임교원 계약을 맺기 위한 조건은 연구비 수주가 있고, 2017학년도 수주 예상액이 10.5억이라고 함. 연구비를 반영하면 총 128억 5천만원이고, 달성시 총 교육비 2,673억 3,900만원으로 예산되어 2017 교육비 환원율은 141%가 달성된다고 함.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액에 반영을 못했지만, 위 부분을 노력하여 교육비환원율 140%달성을 노력한다고 함.

- **위원장** : 캠퍼스타운, 기부금, 산학일체 교수도 계약이나 MOU가 완료된 상태인데 보수적으로 예산을 작성하다보니 예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함. 세종산단도 재정지원사업 제한이 해제되면서 세종 부총장님과 산학협력 단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못한 상황이라 산학협력단 수주 예산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내년에도 건물리모델링이 교비회계에서 집행 될 예정 이라면, 모든 관항목에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교육환경개선 기자재구입, 연구학생경비 및 교육비환원을 개선에 배정되어 사용하도록 요청 함.
- **위원장** : A동 101호, 103호는 경영대학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함. 사범대학은 C동에 있는 공용강의실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A동은 경영대와 C동은 사범대에서 우선사용토록 하 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질의하고, 이번학기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함.
- **위원장** : 교육환경개선 문구는 표현의 차이라고 함. 문구수정은 의논해서 처리하자고 함. 학생지원경비 1억원 증액은 학생처장님이 설명한다고 함.
- **학생처장** : 학생지원팀과 논의해서 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 겠다고 함. 1억원이라는 금액이 목적 없이 지원하기는 어려우니 학생처 와 협의하여 합당한 조건이 명시된다면 가능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2학기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제 행사는 4~5천만원 예 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학생처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함.
- **학생처장** : 문화제 행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 하다고 함.
- **위원장** : 수영장 연장운영에 대한 문제는 학기 중에 수영장을 개방하는 것은 맞지만, 방학 중에는 이용율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고 함. 교학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학기 중에 는 대부분의 수업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의 운 영시간으로는 기본적인 문화생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함.
- **위원장** : 교학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동아리 활동과 개강 후의 문화생활을 위해 개강 전에 논의가 끝나야 한다고 함.
- 위원장 : 개강 전에 논의하자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사회 의결 관련 부분에 대해 설명요청 함.
- 위원장 : 공지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배경이 적시가 되어야 한다고 함.
- 학생처장 : 이사회는 정해져 있었고, 등심위가 합의가 되지 않아 일정이 뒤로 계속 밀린 상황이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함.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록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위원장님과 따로 협의하여 작성하겠다고 함. 일정이 사학진흥재단에 곧 회의록을 보내야 하니, 오늘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내일은 서명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 재무팀장 : 예산, 법인부담금, 이월금을 설명하였고, 매년 동일하게 진행 되므로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동의하지만, 입학금부분은 소송중이니 입학금 부분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함. 하지만 예산, 법인부담금, 이월금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함. 대동제 지원금은 삭감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진행했는지 질의함.
- 재무팀장 : 그렇다고 함.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실제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거나 초과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대동제 지원비 증액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함.
- 위원장 : 재무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문구를 작성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국가장학금 2유형이 24억에서 17억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질의 함.
- 재무팀장 : 학생지원팀에서 편성 및 제출한 국가장학지원금을 그대로 반

	<p>영하였고, 자세한 부분은 장학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함. 아마도 전년도의 경우, 타대학의 국가장학지원금 반환금액을 인센티브로 추가 배정받아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함.</p> <p>- 교학처장 : 세종캠퍼스는 논의 할 것이 없는지 질의 함.</p> <p>- (서울)총학생회장 : 세종캠퍼스 교양 강의실의 불편함이 있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개선할 것이 예상 된다고 함.</p> <p>- 소위원회에서 합의안 문구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함.</p> <p>- 위원장이 1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2017.2.23.)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 함.</p>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위원	위원장	황 병 돈		위원	장 상 희	
	위원	이 선 우		위원	이 수 환	
	위원	전 성 표		위원	조 민 우	
	위원	정 교 범		위원	유 재 호	
	위원	심 재 익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8명	불참	1명
작성자	재무팀 간사 이승용		작성년월일		2017.2.23.	